어린이집 3분기

가 정 통 신 문 자 료 집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BUSAN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목 차

Ⅰ 보육정책 1

Ⅱ 안전정보 14

Ⅲ 건강정보 29

Ⅳ 나들이정보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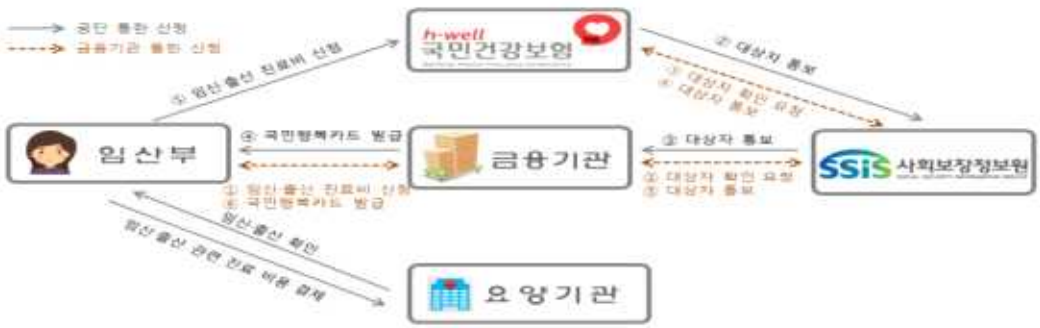
보육정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40만원 더 지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임신·출산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개요

지원목적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진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임산부·유아 건강권 증진
사용방법	시중 금융사에서 발급받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등 결제
운영체계	

● 개정사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지원금액	일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지원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사용범위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세부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기 신청건은 취소불가(당일 신청건 포함)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임산부는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알림> 보도자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40만원 더 지원!'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0809547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알아보아요.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부터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 등 다양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주요내용]

〈1〉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한다.

○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위기아동 방문조사) 복지행정팀 내 1인 담당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 권고**

< 읍면동 '복지행정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요 기능 >

△ (**복지행정팀**)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 담당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보호 연계** 수행

△ (**찾아가는보건복지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담당

-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한다.

* 문항 간소화(29문항→10문항) 및 명확화(아동상태, 양육환경 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수정)

○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2.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

○ **(만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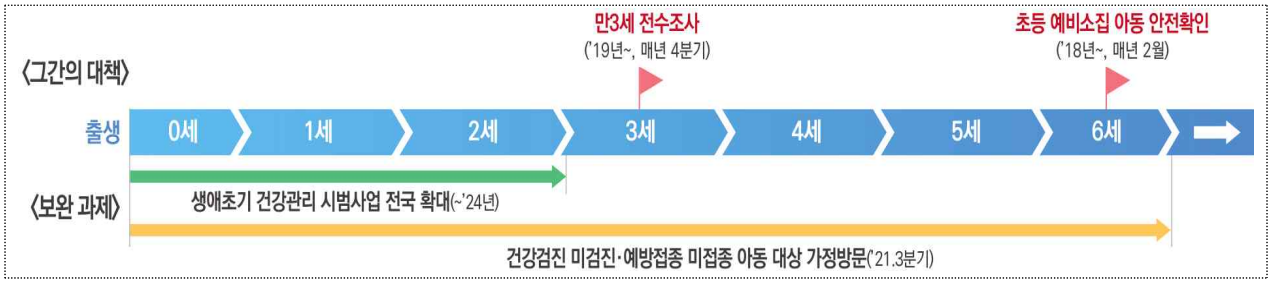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1. 29개소→'22. 50개소→'24. 전국 258개소)

○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 아울러, 올해 **3분기**는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 연령별 영유아 특화 발굴 과정 >



3.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사례관리 모형 구체화 연구용역 추진('21.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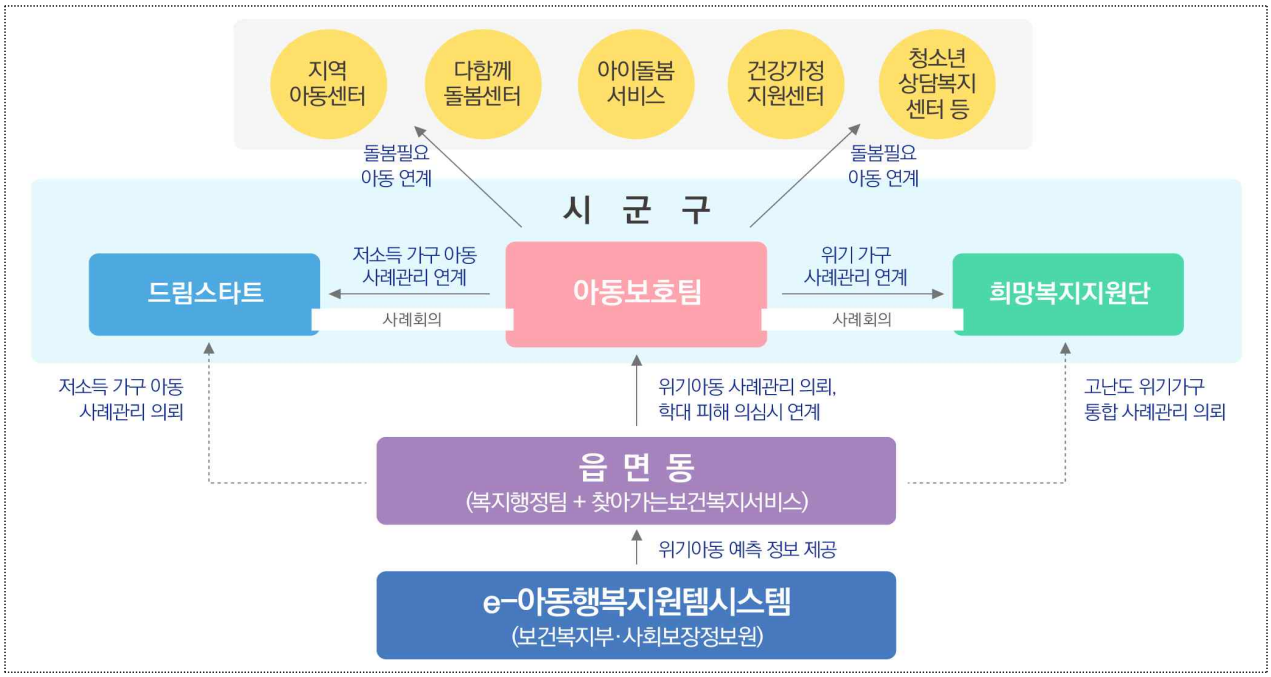
○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 (드림스타트) 저소득 취약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및 사례관리 제공 프로그램('11~)

○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도(안) >



4.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2〉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1.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한다.

○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 참고 사례 >

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 의료진, 사례관리 인력이 함께 사무실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 및 정보 공유

②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청에 학대예방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 사례관리

○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 피해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또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하여,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 후 원 가정 복귀 시에만** 가정복귀 프로그램(12회기)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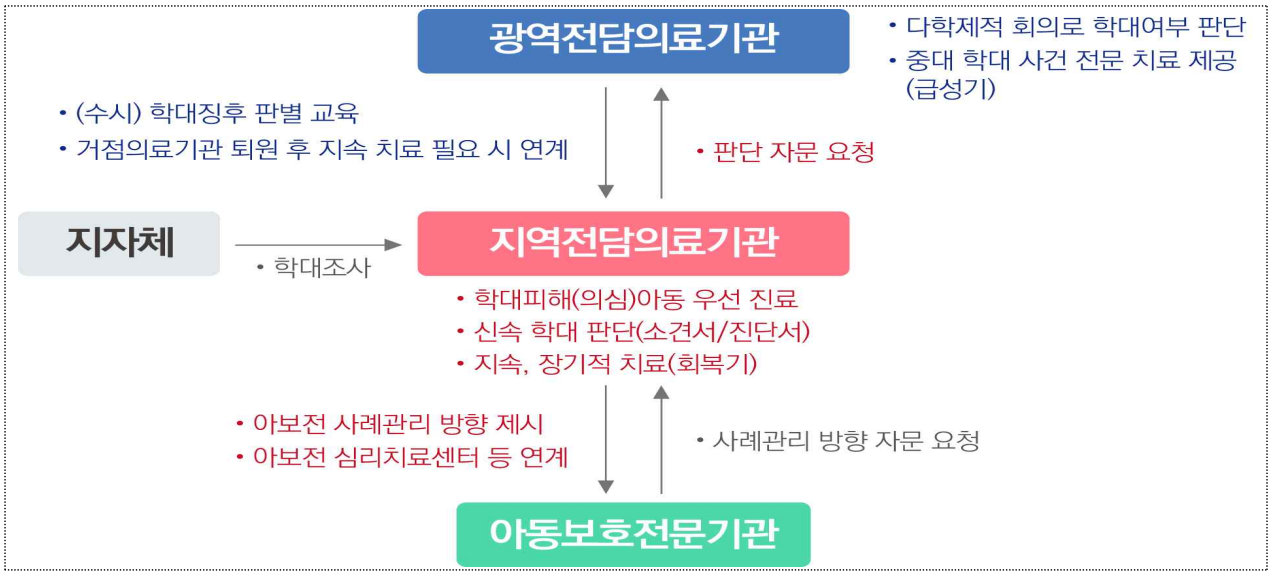
3.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
-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체계(안) >



○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 학대 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치료,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3〉 아동학대 인식 개선

1.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❶ (**온라인**) 아동수당 신청 공공포털(복지로)에 **부모교육 관련 영상 팝업 연계, 영상을 보아야만 수당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

* 기본 양육철학, 아동권리에 대한 메시지 등을 전달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 홈페이지 등 정보 제공

❷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부모에게 '**좋은 부모 십계명, 육아 및 부모교육 관련 정보 등**'을 담은 **리플렛 제공**

-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한다.

○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❶ **정부**(복지부, 여가부), **관계 공공기관**(아동권리보장원 등), **'아이사랑포털'** 등 **온라인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 활용**

-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등 부모교육 자료 **안내 강화**('21.하)
- **올바른 육아법, 아동 징계권 폐지 안내** 등 **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21.10) 및 **확산**('21.11~, 아이사랑포털,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유튜브 등)
  * **학대 행위자** 분석('19, 아동권리보장원) 결과 **올바른 양육방법을 모르거나(26%), 심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경우(12%)가 **다수**

❷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안내 강화**('21.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을 통해 가족서비스(가족·부모교육 상담 및 자녀 양육·돌봄 정보) 기안내('21.5월)

❸ **자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입소** 부모 대상 **아동 존중 및 올바른 육아법, '부모로서의 다짐'** 등 교육 강화('23)
  * 산후조리원 대상 돌봄인력 전문성 및 부모교육 등을 컨설팅하는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한편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한다.

○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21.7)

○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

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한다.

○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4〉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1.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1년 87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년 275억 원)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 → '22년 정부안부터 적용

-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한다.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 **녹취록 작성**이 **전체 업무비중의 32.8%**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20.12.~'21.5., 한국인사행정학회)

○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 → '22년 700명 이상(1인당 60명 담당)

○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3.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 81개 → ('22) 95개 수준 ⇒ ('25) 120개 목표
학대피해아동쉼터 : ('21) 105개 → ('22) 140개 수준 ⇒ ('25) 240개 목표

○ 또한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

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한다.

4.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한다.

○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한다.

  *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 또한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알림> 보도자료>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6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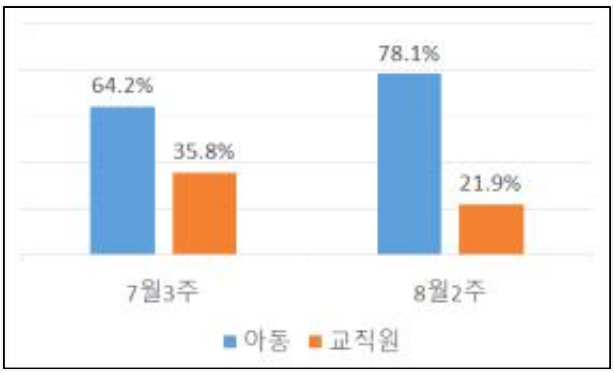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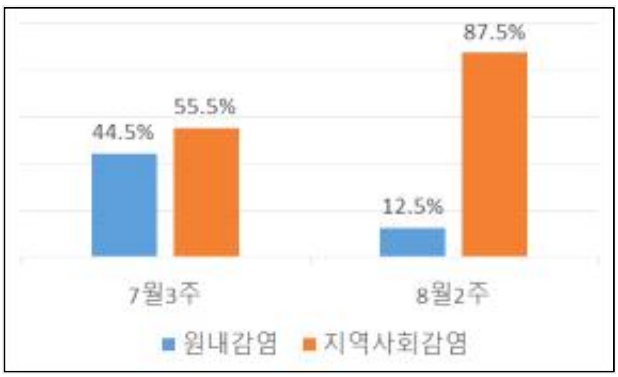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걱정과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실 것으로 예정됩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보육종사자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로부터 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에, 학부모님들께서도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욱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동참해주세요!

[어린이집 코로나19 관련 상황 분석]

□ **어린이집**(아동, 교직원)의 **신규 확진자 발생은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 증가**에 따라 **지속 발생 중**으로, 최근에는 교직원보다 **아동이,** 원내보다는 **지역사회로부터 유입된 감염 사례가 두드러**졌다.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진 현황>





○ 한편, 4월 장애아전담 및 간호인력인 보육교직원 1차 접종 시작 이후,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였는바, 이는 **다른 직군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보육종사자 및 타 직군 접종완료율(2차) 비교(질병관리청, 8.16)**>**

보육종사자	사회필수인력	노인시설	요양병원	취약시설
94.1%	**75.2%**	**85.5%**	**75.3%**	**74.4%**

○ 이 결과로 볼 때, 어린이집 관련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인 **7월과 비교**하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보육종사자 예방접종 현황 7~8월 비교>

구분(명)	7월 3주	8월 2주
예방접종완료자 (접종완료율)	4.2만명(15%)	**25.9만명(94%)**

○ 또한, 현장평가자, 지도·점검, 실습생 및 특별활동 강사 등 **어린이집에 상시 출입 가능한 외부 인력**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대부분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어린이집 코로나19 감염 요인을 차근차근 줄여**나가고 있다.

[대응지침 개정]

□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확진자 발생 시 어린이집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완료자인 **외부인에 대한 출입 및 등원·출근 중단 규정** 등에 **지자체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지침을 개정**하였다.

* 가정, 민간어린이집 간담회(8.17), 1차관 어린이집 방역점검(8.19) 등

< 대응지침 개정 주요 내용 >

	기존	개정
휴원	· 휴원시 긴급보육만 명시	· **(원칙) 단계 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하에 어린이집 운영** - (휴원 명령) 지자체장 결정, 휴원시 긴급보육 제공
일시폐쇄	· 확진자 발생시 14일간	· 확진자 발생시 **최대 14일간**
외부인 출입관리	· (2~3단계) 자제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허용 · (4단계) 금지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 필수 유지·관리에 제한적 허용	· (2~3단계) 자제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여부 확인 후 예방접종 완료자는 출입 허용, 미완료자는 제한적 허용** · (4단계) 금지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만 제한적 출입 허용**
등원·출근 중단	·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있는 경우 14일간	·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등 사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 감염관리 상황 등을 고려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어린이집 조치사항(강화 또는 부분 완화) 변경 시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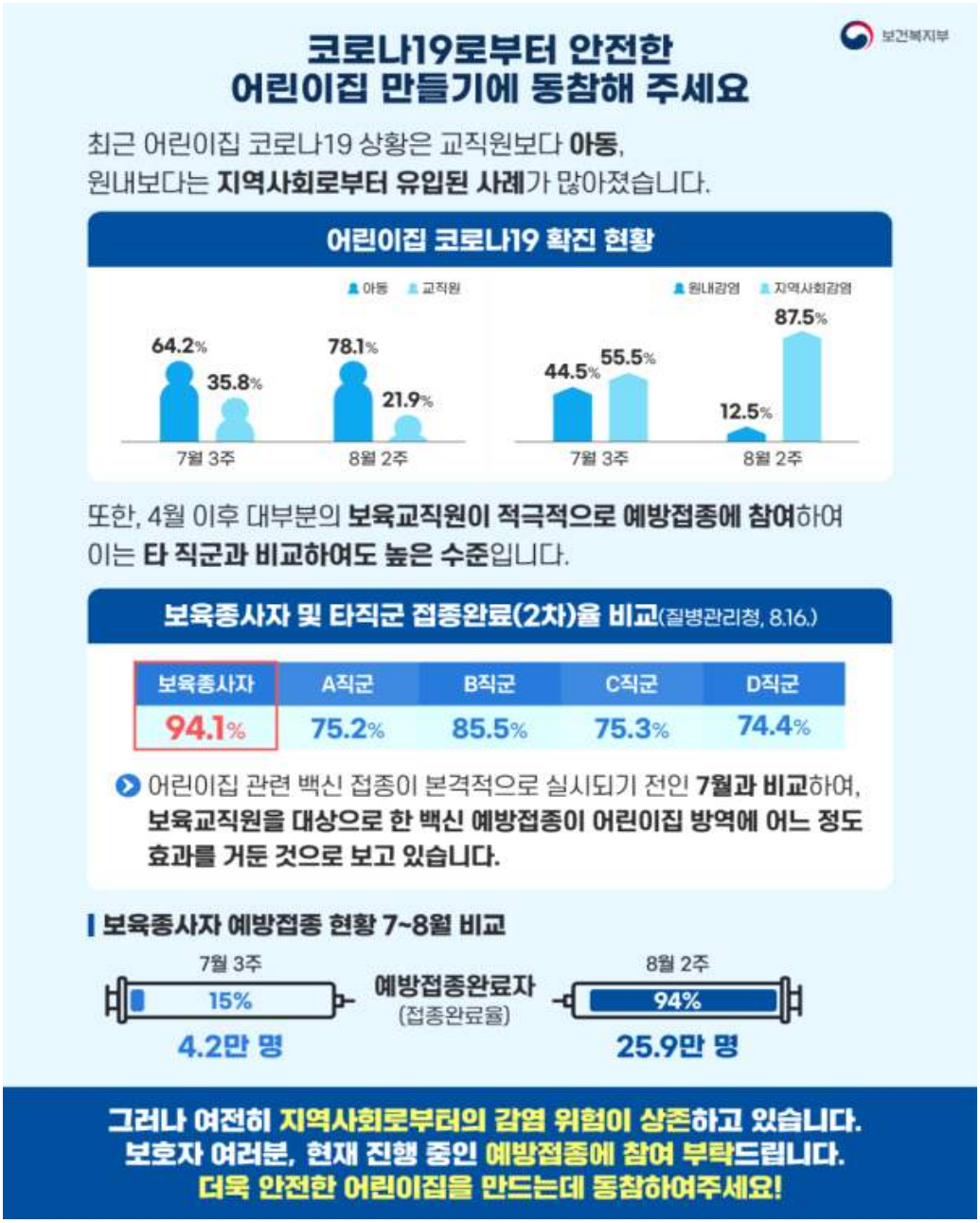
○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역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역학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조치로 **어린이집 돌봄 기능을 유지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도,

○ "여전히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위험이** 남아 있으므로, 어린이집 공동체 모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예방접종에 보호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카드뉴스] 출처:보건복지부

※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알림> 보도자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6947

안전정보

나들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처

가을은 선선한 날씨로 캠핑, 등산, 벌초, 라이딩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야외활동 시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철 특히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 예방법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안내드리오니, 부모님! 이것만은 꼭! 미리 숙지하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사고 예방법]

● 등산 시

- 등산로를 미리 파악하고 통신장비 등의 기본 등산장비를 휴대해야 합니다.
- 음주, 단독산행을 하지 않습니다.
- 하루 산행은 8시간 이하로 하고,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 두시간 전에 마쳐야 합니다.
- 배낭은 가급적 가볍게 하고 발에 맞는 등산화를 신어주세요.
- 사고를 대비해 비상식량을 챙기고, 산행 중 음식물은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합니다.
- 등산로가 아닌 곳은 절대 출입하지 않고, 잘못 들어간 경우 바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 비가 올 때는 계곡산행을 피하고, 계곡물이 늘어나 급류로 바뀐 때에는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 낙석 주의 구간과 바위벽 아래를 지날 때에는 낙석에 주의하세요.
- 조난을 당하거나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고 능선을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 자전거 주행 시

- 자전거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 야간 운행 시 안전을 위해 전조등, 반사장치 등 자전거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 권장속도인 20km/h를 지키고, 과속하지 않습니다.
- 자전거 주행 중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자전거 도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3C)
- 1단계 : 위급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Check)
- 2단계 : 도움을 요청하는 것(Call)
- 3단계 :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Care)

● 구조 요청 시 꼭 알려야 할 정보
- 응급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 부상자의 상태 정도
-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주변에 응급환자 발생 시
- 우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 당황하게 되면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응급처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환자를 더욱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
-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환자 상태가 나쁘거나 급할수록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대는 응급환자 신고접수 후 5분 안에 현장에 출동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119로 전화 가능하다.
- 추락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환자를 옮기려고 서두르게 되면 손상을 악화 시킬 수 있으니 구급대를 기다린다.
- 응급처치가 항상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불필요한 처치를 하거나 응급실 도착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 예를 들어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칼에 손을 베인 경우에 출혈이 멈추도록 상처부위를 거즈로 감싸거나 손으로 누르는 것은 좋지만 약국에 달려가 지혈제나 항생제를 사다가 상처에 뿌리고 응급실에 오는 것은 잘못이다.
-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유지를 위한 호흡과 심장운동이다. 이를 위하여 기도유지, 인공호흡, 심장압박 등이 다른 처치에 우선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고개가 앞으로 젖혀져 있으면 기도가 막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눈에 보이는 사지의 출혈에만 신경쓰다보면 숨을 못쉬어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 병원응급실로 옮겨야겠다고 결정이 되면 가장 가까운 병의원의 응급실로 환자를 옮겨 1차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 무조건 큰 병원만 고집하여 멀리 떨어진 대학병원 등으로 옮기다 보면 치료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

● 모든 물린 상처에서의 응급처치의 기본

- 추가적인 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 물린 부위의 세균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처를 세척 또는 소독합니다.
- 상처 부위의 출혈이 심한 경우 소독된 거즈나 붕대, 깨끗한 수건이나 옷 등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하며 감쌉니다.
-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어지럼증, 전신 위약감 등의 증상이 발현될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하여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상처 부위의 출혈이 심하지 않다면, 즉시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물린 상처 부위를 세척합니다.
- 아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물린 상처 부위에 발적, 통증, 열감 및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 · 전신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경우 · 동물의 광견병 예방 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동물이 아파 보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 · 유기 동물에 물렸을 경우 ·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향후 치료에 대한 계획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에 물렸을 때

- 상처에서 출혈이 심하지 않다면 비누와 흐르는 물로 깨끗이 5~10분간 씻도록 합니다. 이때 상처를 문지르는 것은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약간의 피가 흐르도록 하여 상처 내 남아있는 세균이 상처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합니다.
- 일반적으로 흐르는 물로도 세균이 상처에서 제거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나 만약 요오드액(베타딘) 같은 소독제가 있는 경우 100배로 희석하여 상처를 씻어 주면 광견병바이러스 제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처에 출혈이 있는 경우 소독된 거즈나 붕대, 깨끗한 수건이나 옷 등을 이용하여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여 출혈을 억제합니다.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경우에 따라 다음의 처치를 받도록 합니다.
- 상처 세척 및 소독, 항파상풍 주사, 봉합술 등을 시행하는데, 파상풍 예방접종 경력과 시기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충류(뱀)에 물렸을 때

- 더 이상의 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를 뱀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뱀은 재공격하는 경우가 흔하며, 몸이 잘린 후에도 20분 정도는 움직이므로 뱀을 잡는 행위나 설사 뱀을 잡았더라도 극도의 주위를 요합니다.
- 환자를 안정시킵니다. 흥분해서 걷거나 뛰면, 독이 더 빨리 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팔을 물렸을 때는 반지와 시계를 제거합니다. 그냥 두면 팔이 부어오르면서 손가락이나 팔

목을 조여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 물린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어냅니다.
- 물린 부위는 움직일수록 독이 더 빨리 퍼지므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심장보다 아래에 위치시켜 독이 심장 쪽으로 퍼지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 물린지 15분 이내인 경우에는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독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진공흡입기가 없거나, 의료기관이 1시간 이상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 입으로 상처를 빨아 독을 제거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입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빨아서 독을 제거할 경우 오히려 입 안의 상처를 통해 독이 흡수될 수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여야 합니다,
- 이전에는 독성 물질이 몸에 퍼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압박 붕대 사용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독을 지닌 뱀에 물린 환자에게만 권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압박 붕대의 사용이 다른 독을 지닌 뱀에게 물렸을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2010년 지침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상지에서 40-70mmHg의 압력으로 물린 부위 전체에 압박 붕대를 하는 것과 하지에서 55-70mmHg의 압력으로 압박 붕대를 하는 것은 효과적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뱀독이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 뱀에 물렸을 때에 가장 중요한 행위는 최대한 빨리 119에 연락해 처치 지도를 받으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 벌에 쏘였을 때
- 더 이상의 쏘임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를 벌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피부에 벌침이 박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침이 피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침을 손톱이나 신용카드 같은 것을 이용하여 피부와 평행하게 옆으로 긁어주면서 제거 합니다. 핀셋 또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침의 끝부분을 집어서 제거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침이 피부에 없거나 제거한 후에는 벌에 쏘인 자리를 비누와 흐르는 물로 씻어 2차 감염을 예방합니다. 쏘인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15~20분간 대주면 붓기를 가라앉히고, 통증 감소 및 독소의 흡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쏘인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하여, 독소가 심장으로 유입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 쏘인 부위에 가려움과 통증만 있는 국소적 증상만 있는 경우는 피부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가려움증에 도움이 되고, 진통제는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 기존에 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또는 벌에 쏘인 후에 몸이 붓고, 가렵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는 증세,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경련 및 의식 저하 등의 전신성 과민성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심폐소생술 등)를 시행하면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 전신성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에 한해서 독이 몸으로 퍼지는 것을 늦추기 위해 쏘인 부위에서 약 10cm 정도 상방(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압박대로 폭이 넓은 헝겊이나 끈(2cm 이상 폭)으로 피가 통할 정도로 묶을 수 있습니다. 압박대를 너무 꽉 조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가 통하지 않아 2차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박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맥은 차단하지 않고, 정맥의 흐름만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힘으로만 조여야 합니다. 이송 중 가끔씩 묶인 부위를 관찰하면서 피부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할 경우에는 압박대를 잠시 제거하여 피를 순환시킨 후에 다시 압박대로 묶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그림. 동물 및 곤충에 의한 응급상황〉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홈페이지]

※ 내용출처:

①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예방대비> 국민행동요령> 생활안전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SDIJK14029.html?cd1=29&cd2=999&pagecd=SDIJK140.29&menuSeq=128

②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건강문제 및 상태> 동물 및 곤충에 의한 응급상황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483

※ 위의 사용된 글의 내용은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가을철 식중독 예방 수칙

일교차가 크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은 여름철 다음으로 식중독 발생이 높게 나타나는 계절입니다. 식중독 발생 및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도시락 준비 시

* 조리 전·후 올바른 손 씻기
- 반드시 비누 등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기
* 위생적으로 만들기
- 과일·채소류 등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 김밥을 준비할 경우 밥은 식초, 매실액 등 양념과 섞은 후 충분히 식히고, 재료도 익힌 후 충분히 식혀서 만들기
* 안전하게 용기에 담기
- 밥과 반찬은 식힌 후에 별도 용기에 각각 따로 담기

● 보관·운반 시

* 시원한 곳에 보관·운반하기
-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 등 온도가 높은 곳은 피해서 보관(실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기)
  ※ 자동차 트렁크는 외부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세균 증식이 용이함
- 아이스박스를 이용해서 식재료별 구분 보관·운반하기

● 섭취 요령 시

*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하고, 안전한 물 마시기
- 식사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먹지 않기
* 장시간 실온, 자동차 트렁크 등에 보관된 음식은 먹지 않기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음식은 속까지 익혀 먹기
- 물은 끓여서 먹기
- 식재료별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 식재료와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하기
- 냉장고에서 보관온도 지키기

[이미지출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이미지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이미지출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이미지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내용출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 채널> 슬기로운 식약탐구생활> '식중독예방 6대 수칙~ 놓치지 않을거예요~' https://youtu.be/i8EsjAjBaJk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림자료> 수입식품뉴스> 보도자료> '일교차 큰 가을철 나들이, 식중독 주의하세요' https://impfood.mfds.go.kr/CFBBB02F02/getCntntsDetail?cntntsSn=327225

※ 위의 사용된 글의 내용은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가을·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의 중요성과 의미를 짚어보고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의 날']

● '소방의 날'이란?

-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로 매년 11월 9일에 해당한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에서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현행 소방법 제14조에서는 "시도(市道)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소방의 날의 제정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소화기 사용법

*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쏜다.

* 2인 1조로 사용할 경우
-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창)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
-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준다.
-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끈다.

● 화재가 울릴 때

- 자고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처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연기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 불을 발견했을 때

-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
-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 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눈, 코, 입)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 바닥에 엎드린 후,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

※ 내용출처:
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세시풍속사전
https://folkency.nfm.go.kr/
②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예방대비> 국민행동요령> 사회재난행동요령> 화재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SDIJKM5116.html?menuSeq=127

국민행동요령

화재

소방청

화재대비

■ 안전을 위한 사전점검과 대피훈련을 해야 합니다.

1 사전점검

눈으로는
-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코드 확인
- 가스레인지 중간밸브 잠금 확인

귀로는
- 평소에 나지 않던 이상한 소리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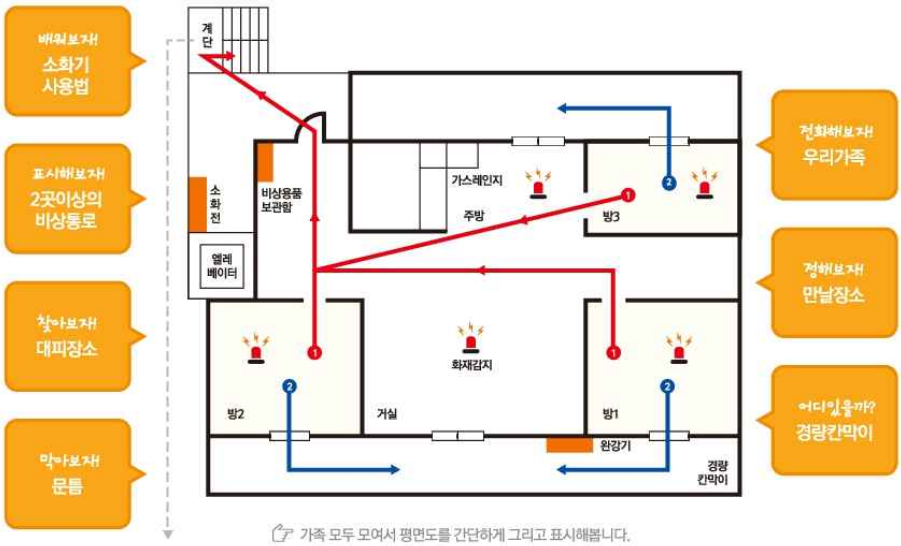
코로는
- 타는 냄새 확인

손으로는
- 만져보거나 두들겨 보거나

행동으로는
- 조리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 난방기구 등 전열기구 사용시 주변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습니다.

2 대피훈련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신속히 움직인다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 모여서 평면도를 간단하게 그리고 표시해봅니다.

챙겨야할 내용 Tip

- 대피 방법과 대피해서 만나는 장소 사전약속
- 대피할 때 가져가야할 중요물건 목록작성과 챙길 사람 선정
- 비상연락 전화번호 및 연락해야 할 대상 선정
- 문틈을 막아야할 경우 청테이프 또는 수건
- 외부 대피 시 사용할 수건 등 대피에 사용할 물건
- 긴급 대피한 경우 만날 장소와 비상연락망

옥상출입문은 항상 열려있는지,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문을 닫아두면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소방청 홈페이지]

국민행동요령

화재

소방청

화재대처

■ 화재 경보가 울릴 때

1 비상소집을 합니다.

- 자고 있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모이게 한 후 대처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2 대피방법을 결정합니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3 신속히 대피합니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4 119로 신고합니다.

-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 휴대폰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해주시고 신고하느라 대피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5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놀이터 등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이미지출처: 소방청 홈페이지]

국민행동요령

화재

소방청

화재대처

■ 불을 발견했을 때

1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을 때

-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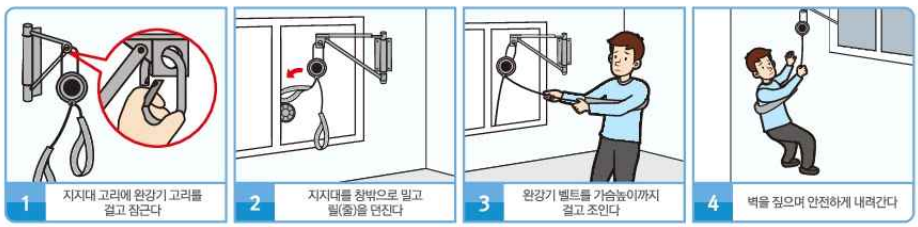
2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 불길이 천정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끄도록 합니다.
- 불길이 커져서 대피해야할 경우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합니다.
-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대피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합니다.

비상구 활용 | 완강기 활용 | 경량칸막이 활용 | 실내대피공간 활용

☞ 1992년 10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피난시설과 기구가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알아둡시다! 완강기 사용법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 2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 3 완강기 벨트를 가슴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 4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완강기 통 안의 구성품을 먼저 확인합니다.

1.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2.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3.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4.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이미지출처: 소방청 홈페이지]

국민행동요령

화재

소방청

화재진압

■ 소화기 사용법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 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1.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3.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4.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쏩니다.

■ 소화전 사용법

2인 1조로 사용할 경우

1.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2.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창)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
3.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4.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끕니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얼굴 화상방지와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1.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2. 얼굴(눈, 코, 입)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도록 합니다.
3. 바닥에 엎드린 후
4. 몸을 뒹굴어서 불이 꺼지도록 합니다.

[이미지출처: 소방청 홈페이지]

국민행동요령

화재

소방청

소방관이 전하는 안전상식

■ 119 신고절차

본인의 위치(주소) ▸ 현재상황 ▸ 부상여부 ▸ 상황요원 안내에 따라 행동

일반전화

1. 수화기를 들어 발신음 확인
2. 순서대로 119 숫자 누르기
3.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휴대전화

1. 119 숫자 누르기
2.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인터넷

1. 인터넷 접속
2. 신고하기 버튼 누르기
3. 성명 등 필수인적사항 기록
4. 사고개요 정확히 기록
5. 등록여부 확인

공중전화

1. 수화기 들기
2. 긴급버튼(적색) 누르기
3. 119 숫자 누르기
4. 소방대원의 질문에 대답

■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자세

대류현상에 따라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외우기 쉽도록 4단계 절차로 기억합니다.

■ 알아둡시다! 은연중에 나를 지켜주고 있는 소방시설

[이미지출처: 소방청 홈페이지]

건강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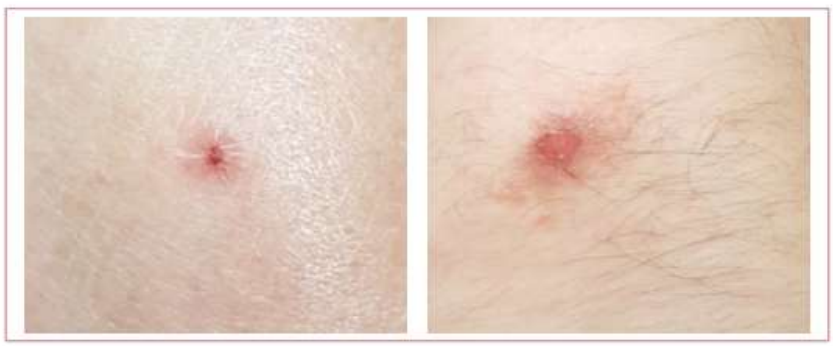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가을철에 주로 발생이 증가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야외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예방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개요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
- 사람 간 전파 보고됨(환자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존재)
- 2013년 이후 국내 환자의 역학 자료 기준 잠복기 4~15일
- 주증상은 38℃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 출혈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시 격리 필요 없음
- 참진드기에 물린 흔적은 확인이 쉽지 않으며, 증상이 나타날 쯤에는 물린 흔적이 사라지기도 함
- 참진드기에 물린 흔적은 아래와 같음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조선대학교병원 자료 제공)]

* 쯔쯔가무시증

-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사람이 물려 감염(주로 경작지 주변의 풀숲 및 관목숲에 분포)
- 사람 간 전파 없음
- 잠복기 1~3주(9~18일)
- 전신적 혈관염을 일으키는 급성 발열질환

- 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 형성이 특징적(진단에 중요)
- 소화기, 호흡기,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음
-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시 격리 필요 없음
-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형성된 가피는 아래와 같음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조선대학교병원 자료 제공)]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작업 및 야외 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착용하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 활동 후
-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이미지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내용출처:

① 질병관리청> 알림·자료> 보도자료> '가을철 증가하는 발열성 감염병 주의 당부! 예방수칙 준수하여 건강하게 보내세요'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368418

② 질병관리청> 알림·자료> 지침> '2021년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3673

※ 위의 사용된 글의 내용은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일회용 기저귀,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기저귀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선택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회용 기저귀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미지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기저귀 선택 방법과 성분표시 확인

- 기저귀를 편안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몸무게와 체형에 적합한 기저귀를 선택해야 합니다.
- 기저귀의 크기를 선택할 때 어린이용은 체중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성인용은 허리둘레 등을 참고해 선택합니다.
- 기저귀 성분을 확인하려면 포장지에 표시된 안감·흡수층·방수층·테이프를 구성하는 원료명(성분명)을 확인해 사용자에게 맞는 기저귀를 선택합니다.
- 참고로, 제조공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하반기부터는 향료에 사용되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25종)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저귀 교체 주기 및 보관방법

- 오랜 시간 동안 기저귀를 착용하면 넓적다리 안쪽, 엉덩이, 하복부 등에 홍반과 짓무름이 생기는 등 기저귀 피부염 또는 습진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요즘 같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칸디다 곰팡이는 짓무른 피부에 쉽게 감염돼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기저귀를 규칙적으로 갈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기저귀를 고정시키는 테이프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기저귀 사용시간과 횟수는 사용자가 섭취한 음식과 수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의 나이, 기저귀 크기, 소변 횟수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장시간 대소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기저귀는 개봉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벌레 등 이물이 혼입되거나 변색될 수 있으므로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서 밀봉해 보관해야 합니다.

※ 내용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림자료> 수입식품뉴스> 보도자료> '일회용 기저귀,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368418

온라인으로 의약품 중고거래 안돼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품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 온라인 중고거래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식품 거래 시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매자는 영업 신고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 또한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 확인 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 의약품 거래 시

-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 의료기기 거래 시

-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의료기기법」제17조)
  *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의료기기법」 제17조)
-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

● 품목별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식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개인 판매	X	X 체온계, 혈압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만 가능	X
영업자 판매	O	O	X

[이미지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이미지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내용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림자료> 수입식품뉴스>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필요'
https://impfood.mfds.go.kr/CFBBB02F02/getCntntsDetail?cntntsSn=361869

나들이 정보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부는 가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실외와 실내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나들이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2021년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어린이창의교육관 (https://home.pen.go.kr/childpia/main.do)

- 어린이창의교육관은 어린이들이 오감을 통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즐겁고 다양한 과학 문화체험과 전시·교육·행사를 운영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마주하게 될 미래 기술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하고 운영하는 어린이 전문 체험 전시관입니다.

<관람안내>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휴관),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공휴일 다음날
- 관람시간: 평일·주말 10:00~17:00 / 매주 월요일 휴관
- 입 장 료: 무료
-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곡로 33번길 29-28 부산어린이창의교육관
- 지하철: 서면역 하차 후 해당 시내버스 이용
- 버스: 81, 33, 44, 54, 63, 113(어린이대공원 하차 후 도보 20분)
- 문의전화: 051-810-8800

<전시관 관람 예약>

- 기　간: 2021.03.01. ~ 2021.12.31.
- 시　간: 1회차(오전) 10:00~12:30
  2회차(오후) 14:00~16:30
- 대　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 내　용: 평일(화~금) 및 주말(토, 일, 공휴일) 전시관 관람 및 체험
- 인　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탄력운영
- 예　약: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10:00)
  익월 온라인 사전 예약 (전화접수 및 당일예약 불가)
- 기　타: 예약 확인 및 전자출입(QR체크인) 후 전시관 입장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입장 제한

<어린이가족영화(토, 일요일) 예약>

- 기　간: 2021.06.01. ~ 2021.12.31. 매주 토, 일요일
- 시　간: 1회차(오전) 11:00~12:30 / 2회차(오후) 15:00~16:30
- 대　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 내　용: 어린이애니메이션영화(더빙, 월별 영화 상이)
- 인　원: 회당 최대 30명
- 예　약: 매주 화요일(15:00~) 온라인 사전 예약
- 장　소: 전시관 1층 창의홀
- 기　타: 전시관 체험 참가 불가
  예약 확인 및 전차출입(QR체크인), 발열체크 후 입장

※ 출처: 부산광역시어린이창의교육관 > 예약 > 전시/창의체험 예약
https://home.pen.go.kr/childpia/main.do

● 부산어린이 VR재난안전 체험교육장 (http://www.busanxr.or.kr/index.php)

- 부산어린이VR재난안전체험교육장은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흥미요소를 동반한 VR기반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별 대응 행동요령과 대처 능력 향상 도모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개소한 안전교육 기관입니다.

<부산어린이VR재난안전체험교육장 이용안내>

- 운영시간: 10:00~18:00 /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21-1(광안동 1034-4) B-Con그라운드
- 주　　차: 건물 좌우측 파란색 무료 지정주차라인 3면(1-14, 15, 29) 또는
  패밀리테크 유료주차창 (10분당 200원, 주차비 별도 지원 불가)
- 이용요금: 무료
- 전화번호: 051-755-8119

교육장	**기초교육실**

<예약방법>

- 사전예약: 부산어린이VR재난안전체험교육장 홈페이지
- 현장예약: 사전예약 후 잔여 시간대 중 현장에서 예약
- 유선·온라인 예약, 단체체험 예약시간대 현장예약 불가

<체험안내 및 방법>

- 체험 안내: 1층 교육실(시설물 이용 등 사전 교육(설명))
  2층 교육실(재난(2종)·안전(3종) 콘텐츠 체험)
- 체험형태: 개인(10인 이내), 단체(10명~32명)
- 체험시간: 매 시각 정각부터 45분간 체험/총 7타임 운영

※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1시간 운영 1시간 방역 수행, 1일 4개팀 체험

<이용안내>

- 체험 전일까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 바람
- 체험 예약은 어린이와 보호자를 포함한 인원으로 신청
- 체험 10분 전 인포메이션에 도착하여 예약 확인 후 1층 기초교육장 입장 바람
- 체험 시작 10분 이후 도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예약 취소
- 예약 취소는 체험 전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 가능하며, 노쇼 3회 시 1년간 예약 불가
- 당일 예약 취소 전화(051-755-8119)

<유의사항>

- 맹인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 금지
- 음주 및 흡연 행위, 위험물 반입, 물품 판매 및 진열, 집회, 연설 불가
- 센터 내 물 이외의 음식물 반입 금지
- 체험 진행 중 직원의 안내를 따르지 않을 시 체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VR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에 대해 체험 전 방문객에게 안내(구두 및 설명)를 하며 안내 후 발생하는 어지럼증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7세 미만 어린이는 체험 장비 착용 시 크기가 맞지 않으면 체험 제한
- 초등학생 체험 시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며, 예약 시에 보호자를 포함한 인원으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람
- 예약 취소 없이 예약 당일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본 시설을 3개월간 예악 금지

※ 출처: 부산광역시어린이VR재난안전체험교육장 > 교육장안내 > 이용안내
http://www.busanxr.or.kr/index.php

● 사상근린공원 숲속모험놀이장

- 숲속모험놀이장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 속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진입부 '시계광장'을 시작으로 유아숲 체험장인 작은 숲속나라, 어린이놀이터 신비의 숲, 모험놀이장 모험의 성 등과 놀이장 상단부 숲 속 쉼터에는 동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소규모 체험장도 마련되어 있는 모험놀이장입니다.
- 사상근린공원은 사상정원, 분수광장, 모험놀이터, 신비의 숲 산책로 등으로 다양한 테마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570(감전동 317)

<이용안내>

- 운영시간: 09:00~18:00 /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휴무
- 문　　의: 070-4010-8130~2

<table>
<tr><td>
</td><td>
</td></tr>
<tr><td>사상공원 숲속모험놀이장</td><td>기초교육실</td></tr>
<tr><td> </td><td> </td></tr>
<tr><td>텃밭체험장</td><td>놀이공간</td></tr>
<tr><td colspan="2">사진출처: 부산시교육청 공식블로그</td></tr>
</table>

※ 출처: 부산시교육청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with_pen/222288533225)

● 기장 용소웰빙공원

- 기장 용소웰빙공원은 자연학습, 건강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과 사실과 기장읍 주민이면 누구나 집에서 걸어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주말이면 가족나들이로 산책과 사계절 아름다운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공원과 연결된 숲길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습지와 물길계곡을 지나 사각수변공원까지 누구나 쉽게 걸으면서 나비와 개구리, 여러 가지 야생화 등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이 되기도 합니다.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2

<이용안내>

- 시　　간: 매일

<table>
<tr><td>
</td><td> </td></tr>
<tr><td> </td><td> </td></tr>
<tr><td>출렁다리</td><td>호수</td></tr>
<tr><td colspan="2">사진출처: 부산시교육청 공식블로그</td></tr>
</table>

※ 출처: 부산시교육청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with_pen/222475914398)